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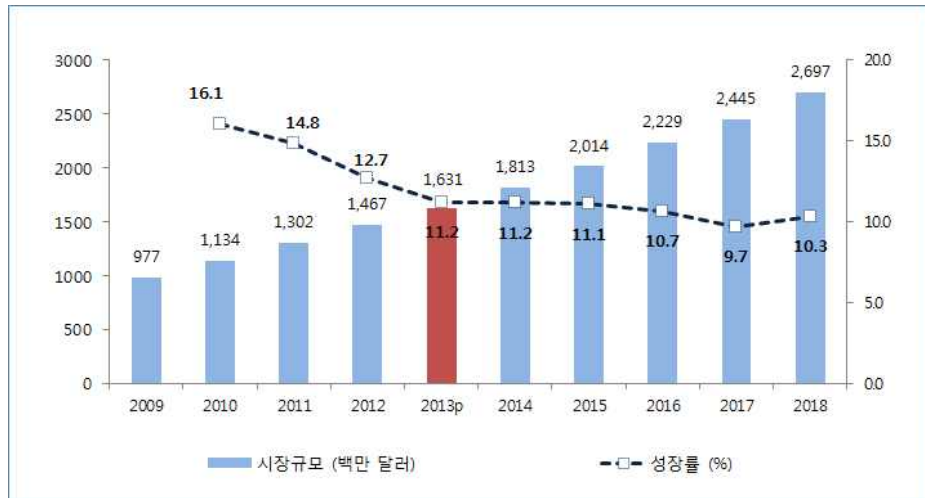
제1절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러시아
- 6. 이탈리아
- 7. 스웨덴
- 8. 터키
- 9. 중동·아프리카

(5) 영화

2013년 러시아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1.2% 성장한 16억 3,1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박스오피스시장과 극장 광고시장, 디지털배급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홈비디오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영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러시아 영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보이며 26억 9,7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24] 러시아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표 6-9] 러시아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극장	842	977	1,111	1,244	1,387	1,520	1,654	1,787	1,920	2,063	8.3
박스 오피스	832	962	1,092	1,222	1,352	1,482	1,612	1,742	1,872	2,012	8.3
극장 광고	10	15	19	22	35	38	42	46	48	51	8.1
홈비디오	102	106	105	103	89	87	86	84	83	81	△1.8
대여	1	1	-	-	-	-	-	-	-	-	-
판매	102	106	105	103	89	87	86	84	83	81	△1.8

제1절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페인

5. 러시아

6. 이탈리아

7. 스웨덴

8. 터키

9. 중동·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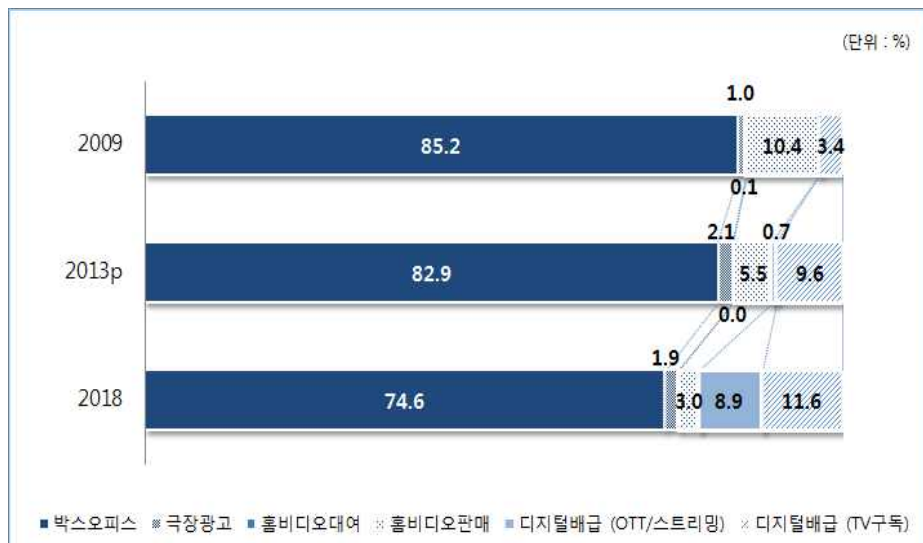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디지털 배급	33	51	86	120	156	205	275	357	442	554	28.9
OTT/스트리밍	-	-	1	3	11	30	69	119	169	241	87.0
TV 구독	33	51	85	117	145	175	205	238	273	312	16.6
합계	977	1,134	1,302	1,467	1,631	1,813	2,014	2,229	2,445	2,697	10.6

출처 : PwC(2014)

2009년 러시아 영화시장은 박스오피스시장이 85.2%의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몇 년간 박스오피스 시장이 영화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배급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2018년에는 박스오피스시장이 74.6%의 점유율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배급시장이 20.5%의 점유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홈비디오시장은 2009년 10.4%에서 2018년 3.0%로 점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5] 러시아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출처 : PwC(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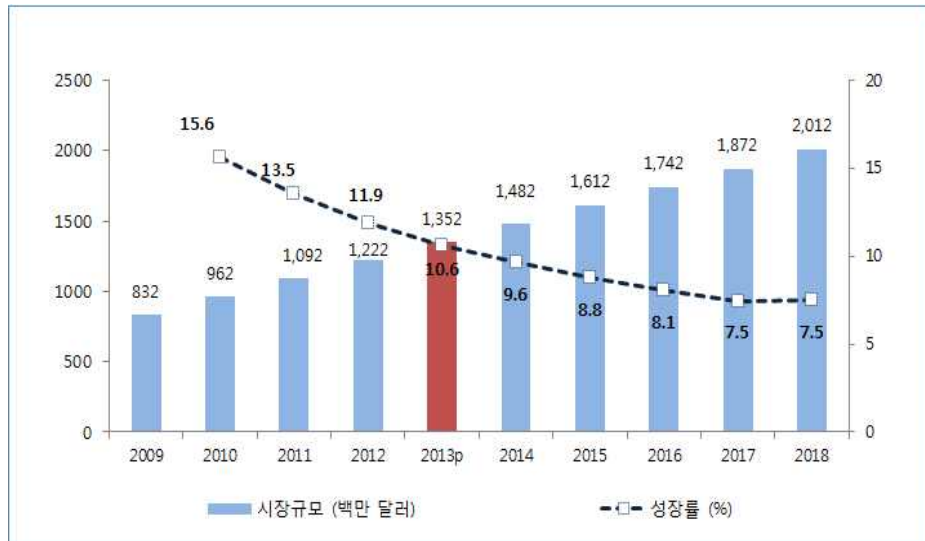
제1절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러시아
- 6. 이탈리아
- 7. 스웨덴
- 8. 터키
- 9. 중동 아프리카

가. 박스오피스

2013년에 개봉된 러시아 영화 중 ‘스탈린그라드(Stalingrad)’는 박스오피스 수익 5,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1위에 랭크되었는데 이 작품은 러시아정부의 지원을 받고 제작한 작품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2013년 러시아의 박스오피스시장은 전년대비 10.6% 성장한 13억 5,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러시아정부는 2014년에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 자금으로 1억 8,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7년까지 러시아의 영화 제작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2배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러시아의 박스오피스시장은 연평균 8.3%의 성장률로 2018년에 20억 1,2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림 6-26] 러시아 박스오피스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나. 홈비디오

러시아 영화시장에서 홈비디오시장은 2013년 8,9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이며 전년대비 13.6% 하락하였다. VoD의 이용증가와 인터넷망의 발달, 디지털배급시장의 발전이 오프라인 홈비디오시장의 하락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홈비디오시장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연평균 1.8%의 하락세로 2018년에는 8,100만 달러 규모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페인

5.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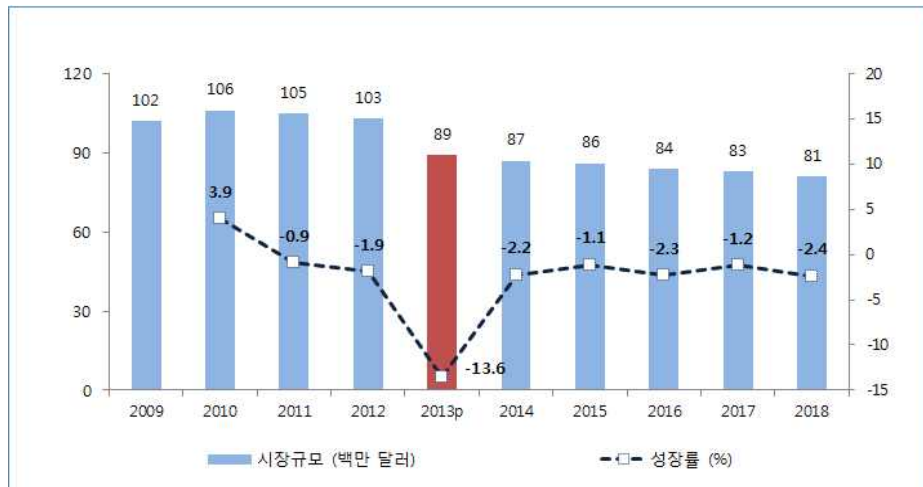
6. 이탈리아

7. 스웨덴

8. 터키

9. 중동·아프리카

[그림 6-27] 러시아 홈비디오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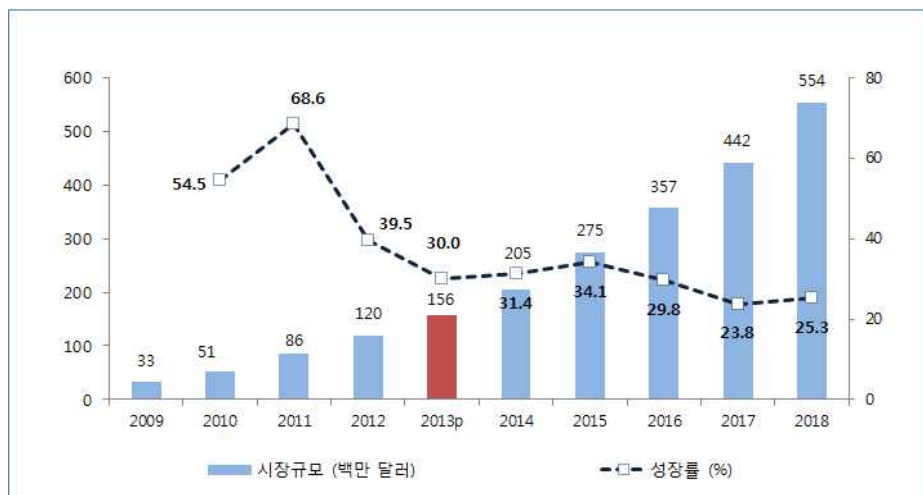


출처 : PwC(2014)

다. 디지털배급

2013년 러시아의 디지털배급시장은 전년대비 30%의 성장률을 보이며 1억 5,6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TV와 OTT/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비디오에 접근하는 소비층이 늘어났으며 VOD 이용층도 크게 증가하여 20만 명 이상의 유료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림 6-28] 러시아 디지털배급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OTT시장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러시아 최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아메디아(Amedia)가 있으며 Now.ru(Gazprom Media), Videomore.ru (CTC Media), Zabava.ru (Rostelecom) 등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의 수익은 향후 3년 후 케이블이나 DTH 서비스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디지털배급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디지털배급시장은 향후 5년 동안 28.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에는 5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